

# Vietnam

하노이지사

## 동남아의 새로운 금광, 두리안

### 전 세계 소비량 날이 늘어나는 두리안

강력한 냄새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기피하기도 하는 두리안이 최근 인기 상한가를 누리고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두리안은 과일의 왕이라고 불린다. 종류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며 같은 단단하고 가시에 뒤덮여 있는 특징을 지녔다. 다 익은 두리안은 커스터드 같은 모양이며 달고 아이스크림같이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 아시아 및 전 세계에 소비량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두리안의 최대 생산국은 연간 생산량이 60만 톤에 달하는 태국과 30만 톤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두리안의 주요 수입국은 싱가포르, 홍콩, 중국이다. 태국에서 수출되는 두리안의 90~95%가 중국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해마다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 두리안 경제효과를 노리는 동남아 국가

그 밖에도 말레이시아에서 5.8%를 중국으로 수출하며 그 수량이 대략 17,000톤(14억 위안 상당, 약 2,311억 4,000만 원 정도다. 2018년, 말레이시아는 GDP 상승의 원인을 두리안 수출이라 보고있으며, '새로운 금'이라 부를 정도로 두리안이 동남아 농업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과일이 되고 있다. 두리안의 한 종류인 말레이시아산 Musang King(무상킹)은 두리안 중에서도 가장 맛이 있으며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종류이다. 현재 매년 말레이시아에서 23% 가까이 생산되고 있는 Musang King(무상킹)을 맛보기 위해 많은 중국 관광객이 이 과일의 원산지인 Pahang(파항)을 방문하기도 한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말레이시아 두리안 농원들은 관광객이 직접 과일을 따고 맛도 체험해볼 수 있는 두리안 여행패키지까지 선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2018년 기준 약 30,000헥타르 정도의 면적에서 두

리안을 재배하고 있으며, 태국산 Monthong(몬통)과 Ri 6라는 두리안 품종을 Tay Ninh(띠이닝), Binh Duong(빈즈영), Tien Giang(띠엔 장), Dak Lak(닥락)에서 주로 생산 중이다. 6년 전 Dong Nai(동나이)시에 위치한 DONA TECHNO(도나 테크노) 생물기술학발전회에서 새로운 두리안 품종을 개발해 미국시장에 진출 시도 중이지만 아직은 미흡한 단계이며 베트남시장조차 완벽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



Key Point

과일 수요 많은 베트남에  
우리 과일 수출 늘려야

인구의 90% 이상이 과일을 먹을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의 과일 사랑은 지극하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건강식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과일도 많이 찾는 요즘 소비자들은 과일을 구매하면서 수입처, 공급처, 경도, 색도, 당도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있다. 한국산 과일은 베트남 현지에서 높은 품질과 당도로 배, 사과, 포도 등이 인기가 많다. 과일 소비가 많은 베트남에 더 다양한 신선과일을 수출한다면 우리 과일 역시 두리안 못지않은 인기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